

제주를 사랑한 김영갑

제주를 사랑한 사람. 제주 중산간을 그림처럼 담아낸 사진작가 김영갑.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군 김영갑갤러리 두모약은 중산간을 가로지르는 성산을 동쪽 마을에 있다. 그의 작품에는 아름다운 제주 자연의 속살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삼달로 |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32-9 ~ 성산읍 삼달리 1069-3(약 2.8km)

난산로 |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300-2 ~ 성산읍 난산리 2803(약 4.3km)

신산중앙로 |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036-6 ~ 성산읍 신산리 438-2(약 0.4km)

신풍하동로 |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12-5 ~ 성산읍 신풍리 72-9(약 2.9km)

독자봉로 |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22-1 ~ 성산읍 난산리 2967(약 6.3km)

남산봉로 |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690-1 ~ 성산읍 신풍리 2148-1(약 3.4km)

삼달로 |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삼달로는 삼달1리와 삼달2리를 연결해주는 길이다. 삼달리(三達里) 마을 이름은 사람이 통달해야 할 세가지 덕을 뜻한다고 한다. 첫째 조정에서는 규율이 중요하고, 둘째 고을에서는 웃어른을 섬겨야 하며, 셋째 세상에 보은과 백성을 위하는 것을 덕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고 살면 마을에 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마을 이름으로 지었다고 한다.



김영갑갤러리

삼달리에는 제주를 사랑했던 사진작가 김영갑의 갤러리인 두모악이 유명하다. 김영갑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에 담으려 노력했다. 바람과 오름, 산과 바다 등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쳤다. 자연이 보여주는 삼시간의 황홀을 담기 위한 그의 집념은 비가 내리고 눈이 쌓여도 멈추지 않았다. 매년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밥 먹을 돈을 아껴 필름을 살 정도였다. 루게릭병에 걸려 고생하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두모악 갤러리는 그가 투병 중에 직접 하나하나 마련한 또 다른 작품이다. 김영갑은 안타깝게도 2005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그가 손수 일군 두모악 갤러리 마당에 뿌려졌다. 그는 이제 두모악에 없지만 사진으로 전하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

난산로 / 신산중앙로 | 난산리와 신산리

난산로는 난산리(蘭山里) 마을 명칭을 적용한 이름으로 난산리 마을 중심에서 시작하여 중산간 지역을 가로지른다. 예전에는 이 지역의 마을을 난미라고 했는데 그것이 난피로 불리다가 한자로 표기되면서 난산리가 되었다. 마을을 지나던 하천이 중국의 범사 호종단에 의해 수맥이 끊겨 건천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난산리의 남쪽에는 신산리가 있다. 일주동로와 만나는 신산중앙로는 신산리 중앙을 지나 바닷가까지 이어진다. 신산리(新山里)는 해안가에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해안가 끝동네라는 의미로 '그등애'라고 불렸다. 그러다 마을이 점차 커지자 '신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평하동로 | 용궁올레

신평하동로는 신평리 하동과 상동을 연결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새롭고 풍요로운 마을을 지향한다’는 뜻인 신평리에는 용궁올레 설화가 전해온다.

신평리 바다에는 수심이 깊어 해녀들이 물질을 잘 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송씨 해녀가 이곳에서 물질을 자주했는데 어느 날 물 속에서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다. 그 전복을 따려고 빗창을 찌르는 순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나보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송씨가 그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여태껏 보지 못한 별천지가 눈 앞에 펼쳐졌다. 거대한 궁궐과 화려한 사람들의 모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여기는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용궁이니 얼른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송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궁의 모습을 보고 싶어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용궁의 수문장이 나타나 송씨를 잡아가려 했다. 송씨는 집에 늙은 부모가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사람이 용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날카로운 바위가 솟아났는데 사람들은 칼날처럼 생긴 다리라고 해서 칼선다리라고 불렀다.



독자봉

독자봉로/남산봉로 | 독자봉과 남산봉

독자봉로는 신산리에 있는 독자봉(獨子峰)에서 부여된 이름으로 신산리 일주동로에서 중산간동로를 거쳐 서성일로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홀로 떨어져 있어 외롭게 보인다고 독자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말굽형의 굽부리 형태인 독자봉은 신산리 인근의 해안을 감시하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설치되어 수산봉수, 남산봉수와 교신하면서 소식을 전했다. 독자봉이 있는 마을에 독자가 많은 것이 이 오름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전한다.

독자봉을 지난 중산간동로는 신평리에 이르러 남산봉로와 만난다. 이 길은 남산봉(南山峰)에서 부여된 이름으로 영주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남산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 오름은 과거 정의현의 관청이 있던 성읍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름이다. 그래서 해안가의 연대와 중산간의 오름 등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남산봉수를 통해 정의현에 전해졌다. 그만큼 정의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오름이었다.